

# 보험

산업이슈 브리프 |

## Check Point

- 상생금융 정책기조 보험료 조정에 반영
- 손보사 자보로 인하 영향 세전익 -4~5%
- 실손 보험료 인상폭 축소로 긍정효과 미미

## 24년 보험료 조정 관련

Analyst 전배승 \_ bsjun@ebestsec.co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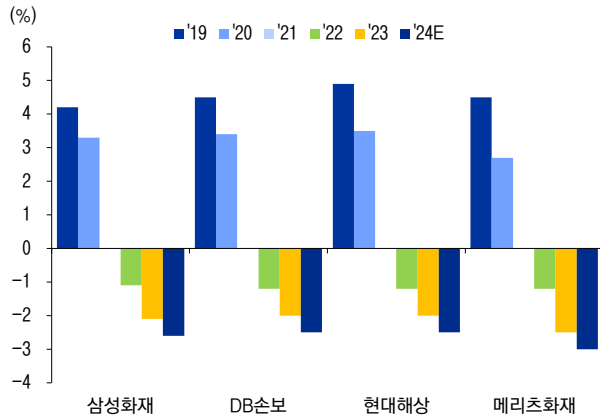
### 24년 자동차, 실손보험료 조정: 상생금융 정책기조 반영

- ▶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4년 주요 손보사는 자동차보험료 인하율을 2.5% 수준으로 결정. 지난해 -2.0% 대비 인하 폭이 확대. 낮은 수준의 자동차 손해율과 고물가 부담, 상생금융 실천 등이 요율인하 배경으로 작용
- ▶ 실손보험의 경우 인상률이 평균 1.5%(1세대 -4%, 2세대 1%, 3세대 18%)로 나타남. 지난해에 이어 손해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3세대의 인상률이 높게 결정되었으나, 전체 인상률은 22년(8.9%)과 21년(14.2%)대비 크게 축소됨. 백내장 손해액 감소에 따른 1세대 인하율이 크게 설정되었고 자동차보험료 조정과 마찬가지로 상생금융 정책이 실손보험료 상승폭을 제한

### 최종 영향은 손보사 세전이익 -4~5%. 생보사 +0.5%로 크지 않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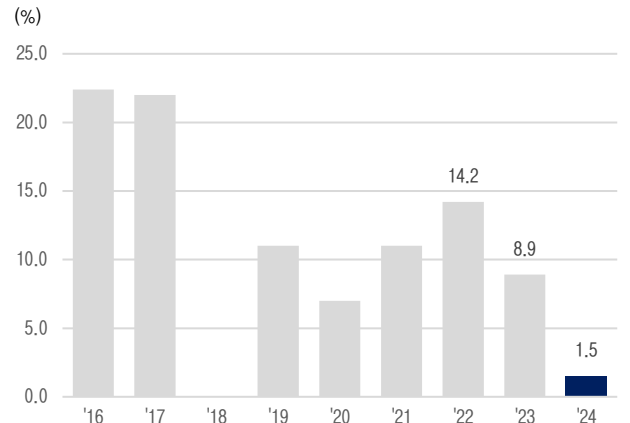
- ▶ 3개 손보사의 자동차 보험료 인하에 따른 영향은 자동차손익이 평균 1,000억원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됨. 세전이익 대비로는 5.1% 수준(회사별로 4.5~6.7%)
- ▶ 실손보험료가 회사별로 동일하게 1.5% 인상될 경우 위험보험료 수준을 공개하는 보험사를 기준으로 손보사는 -0.4%, 생보사는 -0.2% 가량 위험손해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. 보험료 인상폭이 크게 축소되면서 위험손해를 개선효과도 23년의 -2.5%~2.8%에 비해 큰 폭으로 낮아짐. 세전이익에 미치는 영향 또한 +0.4~0.7% 수준으로 크지 않음
- ▶ 보험료 조정영향을 동시에 반영할 경우 삼성화재 기준으로 전체 세전이익은 4.2%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(자동차 -4.8%, 실손 +0.6%). 실적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으나 원가인상과 엔데믹 이후의 손해액 증가양상 감안시 24년 예상차에는 다소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어 보임

그림1 자동차 보험료 조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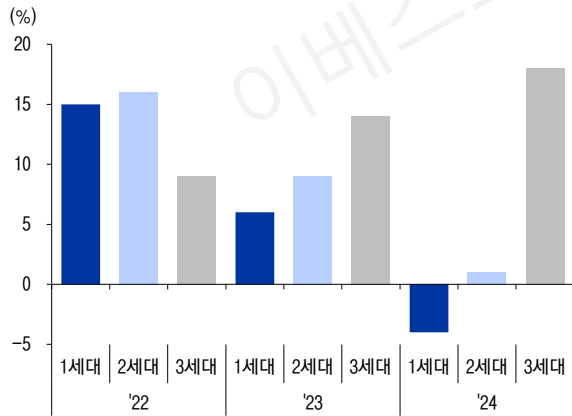
자료: 언론 보도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2 실손보험료 조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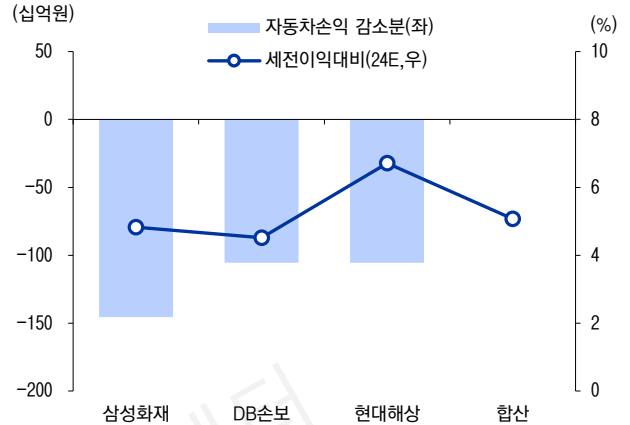
자료: 언론 보도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3 실손보험료 세대별 조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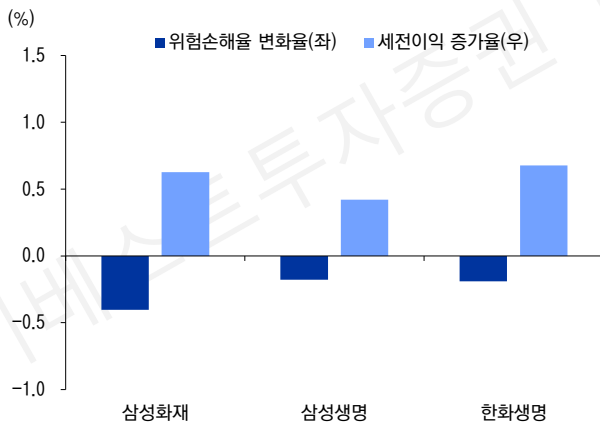
자료: 언론 보도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4 자동차 보험료 조정영향 추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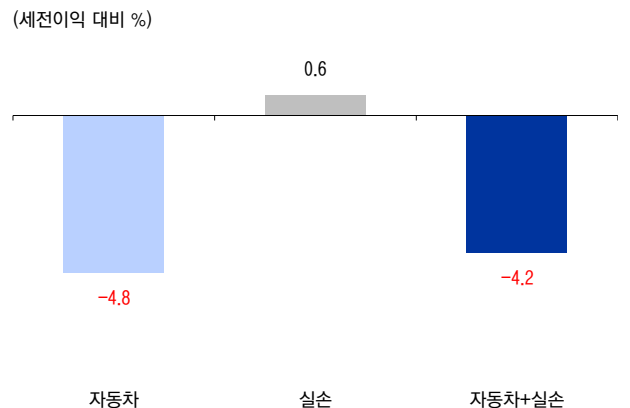
자료: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5 실손보험료 조정영향 추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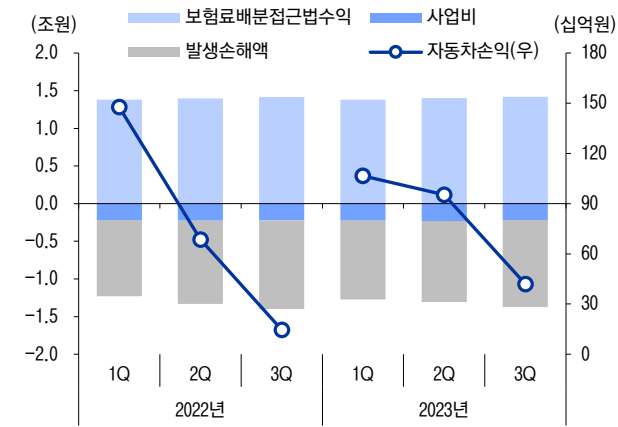
자료: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6 삼성화재 자동차+실손 보험료 조정 세전이익 영향 추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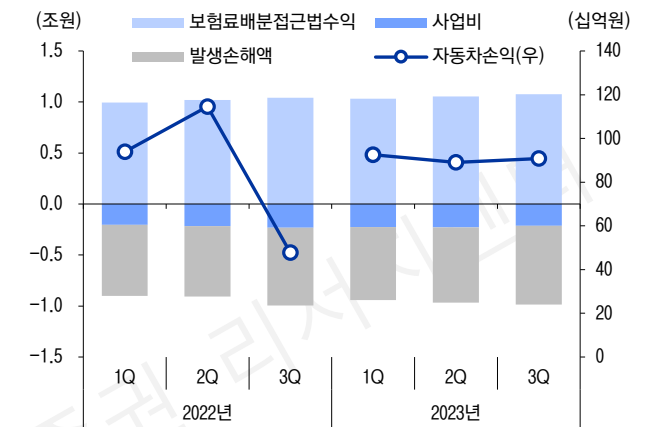
자료: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7 삼성화재 자동차손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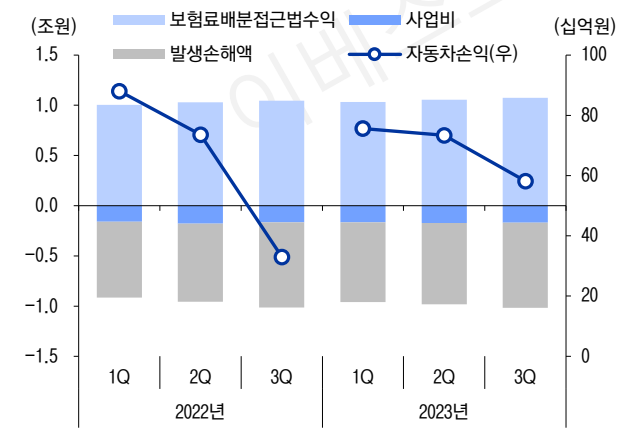
자료: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8 DB 손해보험 자동차손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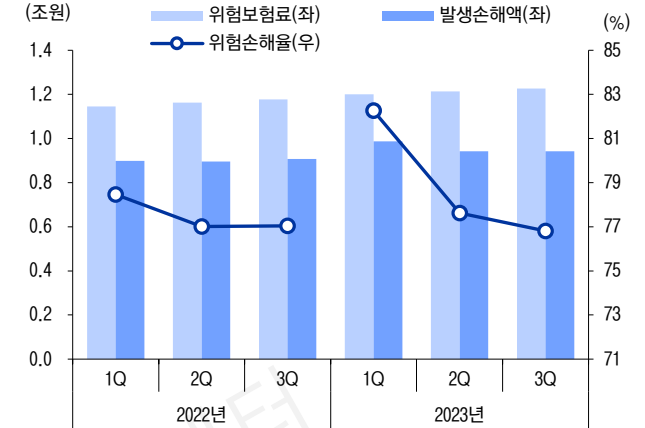
자료: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9 현대해상 자동차손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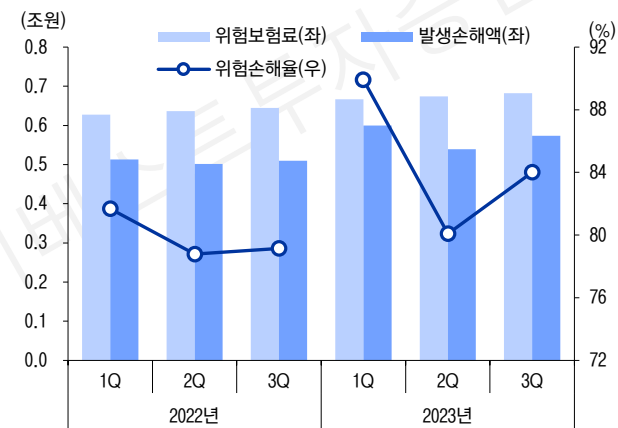
자료: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10 삼성생명 위험손해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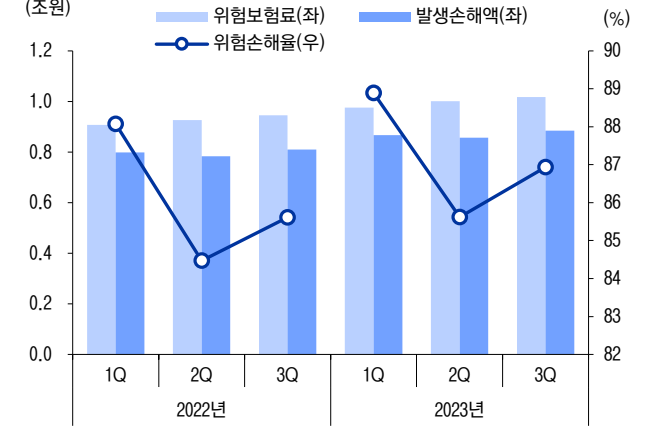
자료: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11 한화생명 위험손해율



자료: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12 삼성화재 위험손해율



자료: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**Compliance Notice**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전배승)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- \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\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\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\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

**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**

구분	투자등급 guide line (투자기간 6~12개월)	투자등급	적용기준 (향후 12개월)	투자의견 비율	비고
<b>Sector</b> (업종)	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	Overweight (비중확대) Neutral (중립) Underweight (비중축소)			
<b>Company</b> (기업)	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	Buy (매수) Hold (보유) Sell (매도)	+15% 이상 기대 -15% ~ +15% 기대 -15% 이하 기대	91.4% 8.6%	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±20%에서 ±15%로 변경
		<b>합계</b>		<b>100.0%</b>	투자의견 비율은 2022. 10. 1 ~ 2023. 9. 30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(최근 1년간 누적 기준. 분기별 갱신)